

무주를 '태권City' 로 조성한다

도, '태권도원주변 개발·관광활성화' 심화토론회... 도-시군-전문가 등 공조 추진동력 확보

낙후된 무주를 태권도 City로 조성하기 위한 태권도원 주변 개발 및 관광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명실공히 무주를 태권도 City로 조성하기 위해 24일 도청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태권도원주변 활성화 심화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있었던 '진안홍삼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 이어 '태권도원주변 개발 및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심화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시군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도-시군-전문가 등이 공조해 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안목을 바탕으로 지역내부에 국한되어 온 해묵은 현안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조성된 태권도원의 활용도 제고 및 대회 이후 태권도원주변 지역 활성화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미시적 관점에서 태권도원주변의 동부권 발전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낙후된 무주군을 태권City로 조성함으로써 태권도원의 공간적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더해졌다.

특히 '태권City 조성'은 대선공약 및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리보완 및 사업 구체화로 사업화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및 교통량 증가 대비 해소대책으로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구간 확·포장에 대한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태권도원의 핵심으로 교육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문체부에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었는바, 관련 동향에 전북도와 무주군이 선제적으로 대비해 사관학교 설립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의 대화가 오갔다.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로 위험구간 개선이 이뤄진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주~설천 국도30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국가예산사업이 건의돼 도와 무주군의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도-시군-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 아래 무주태권도원 개발 및 관광활성화의 희망과 씨앗을 찾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화토론회를 갖고 동부권의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선관위, '블로그 기자단' 발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3층 상황실에서 제3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3기 블로그 기자단은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선거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유권자 '블로그 기자단' 9명과 직원 '블로그 기자

단' 15명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도선관위 공식 블로그인 'e세상'을 통한 스토리공간에서 활동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희망,공정,화합의 '이름다운 선거' 가치가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선거기사와 카드뉴스,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해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활동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해 범도민적인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공정률 30%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동서도로(새만금방조제~김제시 진봉면) 건설 공사가 3월 현재 30%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 착공된 동서도로는 올해 말 47%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본부장은 "동서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용지 개발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남원 춘향골전통시장 일원에서 상가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홍보, 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촌응급처치 교육' 신청 접수

전북도는 '농촌응급처치 전문인력 교육'에 참여할 농촌지역 마을이장 등 마을지도자와 일반주민, 농업인을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전북도는 4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정수군에 있는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농업인은 6월 중 '대전 KT 인재원'에서 전문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료 농업인에게는 교통비 2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4월 3일까지 시, 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현실상 마을 어르신들의 응급처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화재사고 예방한다

도, 남원 춘향골전통시장 안전점검·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전북도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남원 춘향골전통시장 일원에서 상가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홍보, 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남원시, 한국전기.소방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에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건조한 날씨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996년 4월 4일부터 매월 4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잇따라 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있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과 화기관리 등 안전점검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친환경 농업지구, 인증 취득 증가

친환경농업실천 규모화를 위해 조성된 도내 친환경 농업 지구 55개소의 운영실적은 1만2,358농가에서 4,000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3,920ha보다 80ha(2%) 증가했으며, 도내 전체 친환경인증면적(6,799ha)의 58.8% 규모이다.

2011년 1,532ha에서 매년 20%정도씩 증가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선호에 생산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의 역점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H/W)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S/W를 묶어서 개소당 1억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10년간 1,051억원을 투자해 55개소가 육성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는 부안 하서미래지구, 무주관역단지 인센티브 등 3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의 집단화와 사업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컨설팅·브랜드 개발 등의 S/W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지구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완료후 3년이 경과된 지구를 대상으로 선정당시보다 인증면적이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를 평가해 몰랑 증가로 인한 시설·장비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2곳 수상

부안 봉산길 43-12 '최우수상' · 군산 해망로 196 '장려상'

획일적인 도로명주소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해 디자인과 예술로 승화시킨 도내 2개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추천작이 행정자치부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심사 결과,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됐다.(관련기사 10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부안군 봉산길 43-12는 외벽을 시계와 조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례로 우수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고, 군산시 해망로

196은 우체통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장려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2개의 작품이 우수사례 11작품에 모두 포함돼 당선작 비율이 높은 우수시도로 평가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서도 "건물의 외벽과 모서리 등을 적절히 이용해 조화로우면서도 가독성,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우체통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호평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건축 설계사부터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